

울산중친회 제25차 정총 및 신년회



울산중친회 25차 정총에서 권오영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울산중친회(회장 권오영)는 지난 1월 2일 오후 6시 울산시 삼산동 드마리스 뷔페에서 권오영 회장의 연임으로 인해,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제25차 정기총회와 신년회를 개최했다.

더욱더 친목과 화합, 발전하는 한해가 되시길 바라며, 권일수 초대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날 권명호 시의원, 권혁진 울산시문화체육국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권응목 울산청장년회 부회장>

권태룡 사무국장의 사회로 권오영 회장은 인사에서 임진년 새해에는 중친회가

서울 청·장년회 신년회



서울 청장년 신년회 행사 모습 (가운데: 권혁창 회장, 우측: 권영상 초대회장)

권혁창 회장은 새해 임진년 1월 5일 오후 7시 대종원회관 건물 앞 고기풍년 본집에서 초대회장 권영상 고문(현 대종원부총재), 권경수 고문, 전임회장 권혁용 고문(대종원 부총재) 등 축전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임진년(壬辰年) 신년회를 개최하였다.

권건히 단합하여 권문(權門)의 주축이 되는 해가 되어야겠다고 하였다. 이어 영상 고문의 축사로 근간 후손들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두각을 떨치는 면모를 볼 때 다시 한 번 깊은 애족정신(愛族精神)을 느끼게 된다며 또한 이 회의 고문으로써 신년을 기해 청년회가 더욱 앞장 서 문사(門事)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오준 총무의 결산보고와 공지사항 등으로 회의를 마치고 신년 만찬으로 혁창 회장의 신년 축배제의로 우리 청년회의 '단합과 발전을 다짐하며 더불어 권문의 무궁한 번영을' 제의로 2012년 신년회행사를 모두 마쳤다.

이날 권금진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먼저 시조(始祖) 태사공(太師公)에 대한 망배(望拜)에 이어 혁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년 초 분주한 가운데 참석해주신 초대영상 회장님, 정수고문, 전임회장님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회원님께 우선 새해를 기해 복(福) 많이 받으시며 더욱 건강하시라'고 인사 한 후 금년 임진년은 우리 회가 더욱

권범준 본원기자

의성중친회 신년인사회 및 총회



의성중친회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권오열 회장

의성중친회(회장 권오열)는 지난 1월 7일 오후 2시 의성중친회관에서 권정달 대종원총재, 정해걸 국회의원, 김복주 의성군수 및 축전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 및 총회를 개최했다.

권순락 사무국장의 사회로 권오열 회장이 권오복 직전회장, 권순진 前 총무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이어 권오열 회장의 인사와 권정달 총재의 격려사, 정해걸 국회

의원, 김복주 의성군의 각 축사가 있었다. 이어서 권민아(금성여상(1)), 권건모 군(의성중(1))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회의에 들어가 안건으로 현 중친회관 앞 대지(58평) 구입안을 상정해, 이 구입을 위해 각 면부 중친회장단과 축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있기를 바란다'고 진지하게 토의하고 폐회했다. <권혁세 기자>

안동청장년회 송년회



안동청장년회는 송년회를 서부동에서 개최하고 있다.

안동청장년회(회장 권대능)는 지난 12월 21일 오후 7시, 안동시 서부동 '쌈들이식당'에서 권재주 안동중친회장 및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권광택 사무국장의 사회로 권대능 회장의 인사와 권재주 중친회장의 격려사,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 권기익, 광택, 탁 시의원의 각 인사가 있던 후 행사를 마치고 회식에 들어가 축전간의 족의를 더욱 더 두텁게 했다. <권혁세 기자>

길림중친회 제29차 정기총회

길림중친회(회장 권중희)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0시, 길림시 장백산 식당에서 남녀축전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혁신총무의 사회로 상례행사에 이어 권중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 중친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축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새해 임진년에는 축전들의 가정에 화목과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새로운 문사창출에 더욱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임원선출(제3기)에 들어가 회장에 권중희 회장이 유임되었다. 이날 선임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권중인, 영길 ▲회장:권중희 ▲부회장:권오국 ▲부녀회장:권길순 ▲홍보:권기동, 호석 ▲총무:권혁신

<권중희 회장>

안동옥동중친회 창립총회



안동 옥동중친회 발기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2월 20일 오후 6시30분, 안동시 서후면 '명동(예담) 식당'에서 안동시 옥동에 거주하고 있는 권재환, 인담, 인천(전도원) 씨 등 축전 23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 옥동중친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날 권재주 안동중친회장의 축사의 인사가 있었으며, 이어 임원선출에 들어가

권인탑 중친회부회장이 임시의장에 추대되어 5명의 전행위원에서 ▲초대회장:권중근 ▲부회장:권기현, 혁수, 기운, 재환, 태정, 세규, 민정, 태규 ▲감사:권오영, 태철 ▲총무:권오영 씨 등이 선임되었다.

<권혁세 기자>

미담사례

강서구청 환경미화원 권용선씨



에 한 번씩 헌혈을 하기도 했다. 권씨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가진 게 없는 사람이다. 1975년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소녀를 베다 손가락 3개를 잃었다. 오른손에는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밖에 없다. 20세에 서울에 올라와 공사장 막일로 끼니를 이었으며 29세 때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가다가 넘어진 뒤로 청력을 잃었다. 청각 장애 3급이며 소리가 약하게 들리 양쪽 귀에 하나뿐인 보청기를 번갈아 끼며 대화한다. 19년 동안 환경미화원을 하며 마라톤 15평 다세대주택에서 산다.

작은 나눔으로도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 2년간 매일 아침 1000원씩을 기부해온 강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권용선(52)씨를 조선일보 김효 인기자가 지난 1월12일 만나 인터뷰한 기사를 인용 보도한다.

1월11일 권씨는 잠감을 벗은 뒤 찬 바람에 맞힌 콧물을 손등으로 쓱 훔쳤다. 작업복 주머니를 뒤져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함에 넣었다. 세상에서 가장 환한 웃음이 권씨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모금함 바로 앞에서 근무하는 주민센터 직원 오계영(44)씨는 "권 선생님은 매일 9시에서 9시 반 사이 어김없이 모금함에 돈을 넣고는 직원들이 타주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청소하러 나간다"고 말했다.

매일 1000원씩 하는 기부는 벌써 2년이 됐다. 권씨는 2010년 새해를 맞아 해 담배를 끊기로 결심하고 대신 그렇게 아낀 돈을 기부하기로 했다.

씨는 2011년 12월에 100만원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에 써달라며 주민센터에 맡겼다. 또한 그는 지난 2005년부터 강서구 방화동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명절 때 찾아가 밀린친과 20만원씩을 챙겨 주었으며 더불어 한 달

씨는 슬하에 남매를 두어 아들(25세)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실내용장식 일을 하고 있으며

딸(23세)은 대학을 졸업하고 제과점에서 제빵기술자(자격증소지)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정년까지 7년을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돕고 기부하면서 살아 가겠다고 가족들에게 밝히기도 했다.

한편 권씨의 청소구역은 강서구 우장산동 도로 1.8km(오전 5시-오전 7시), (오전 8시-오후 12시), (오후 1시-오후 3시)까지로 하루 세 번을 청소하면 끝이난다.이어서 권 환경미화원은 쉬지 않고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2시간정도 폐지를 주어서 재활수집장에 팔고 집으로 들어간다. 이렇듯 묵묵히 正道를 걸으며 매일 100원씩을 기부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청소하고있는 용선씨는 나이 20세때에 공사장에서 전전할때에 신문에 어느 할머니가 푼푼이 모은돈 전부를 사회에 환원 기부하면서 살아야겠다고 그때 결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겨우 이렇게 밖에 봉사하고 많이 돕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웃음으로써 활짝 웃어주시고 해

<편>

성인들의 사상

退溪 李滉과 進聖學十圖筭



퇴계는 연산군 7년(1501년) 경상도 예안현(禮安縣) 은계리(溫溪里: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은혜리)에서 좌찬성 이식(李植)의 7남 1녀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12세에 작은아버지 이우(李瑀)로부터 "논어"를 배웠고, 14세경부터 혼자 독서하기를 좋아해, 특히 도담(陶潛)의 시를 사랑하고 그 사람됨을 흠모하였다.

중종 22(1527년) 향시(鄕試)에서 진사시와 생원시 초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들어가 다음해에 진사 회시에 급제하였다. 1533년 재차 성균관에 들어가 김인후(金麟厚)와 교유하고, "심경부주(心經附註)"를 입수하여 크게 심취하였다. 이 해에 귀향 도중 김안국(金安國)을 만나 성인군자에 관한 견문을 넓혔다.

1534년 문과에 급제하고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가 되고 사가독서(賜暇讀書)에 임명되었다. 을사사화 후 병약함을 구실로 모든 관직을 사퇴하고, 명종 1년(1546년) 고향인 낙동강 상류 토계(兔峴)의 동암(東巖)에 독서에 전념하는 구도 생활에 들어갔다. 이때에 토계를 퇴계(退溪)라 개칭하고, 자신의 아호로 삼았다.

그 뒤에도 자주 입조의 명을 받아 외직인 단양군수가 되었다가 병입 전에 청해서 경상도 풍기군수로 전임하였다. 풍기군수 재임중 주자가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부흥한 선례를 좇아서, 고려 말기 주자학의 선구자 안향(安珦)이 공부하던 땅에 전임 군수 주세붕(周世鵬)이 창설한 백운동서원에 편액(扁額)·서적(書籍)·학전(學田)을 하사할 것을 감사를 통해 조정에 청원하여 실현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조선조 사액서원(賜額書院)의 시초가 된 소수서원(紹修書院)이다.

1556년 흥문관부제학, 1558년 공조참판에 임명되었으나 여러 차례 고사하였다. 1543년 이후부터 이때까지 관직을 사퇴하였거나 임관에 응하지 않은 일이 20여 회에 이르렀다.

1560년 도산서당(陶山書堂)을 짓고 아호를 '도옹(陶翁)'이라 정했다. 이로부터 7년간 서당에 거거하면서 독서·수양·저술에 전념하는 한편, 많은 제자들을 훈도하였다.

명종은 예(禮)를 두터이 해 자주 그에게 출사(出仕)를 종용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이에 명종은 근신들과 함께 '초현부지탄(招賢不至嘆)'이라는 제목의 시를 짓고, 몰래 화공을 도산에 보내 그 풍경을 그리게 하였다. 그리고 그것에다 송인(宋寅)으로 하여금 도산기(陶山記) 및 도산잡영(陶山雜詠)을 써넣게 해 병풍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 조석으로 이황을 흠모했다 한다. 그 뒤 친정(親政)하게 되자, 이황을 자헌대부(資憲大夫)·공조판서·대제학이라는 현직(顯職)에 보하여 자주 초빙했으나, 그는 그때마다 고사하고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1567년 명나라 신제(新帝)의 사절이 오게 되자, 조정에서 이황의 내경(來京)을 간절히 바라 어쩔 수 없이 한양으로 갔다. 명종이 돌연 죽고 선조가 즉위해 그를 부왕의 행장수찬첨당상경(行狀修撰廳堂上卿) 및 예조판서에

임명하였다. 하지만 신병 때문에 부득이 귀향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황의 성망(聲望)은 조야에 높아, 선조는 그를 송정대부(崇政大夫)의 정부우한성에 보하며 간절히 초빙하였다. 그는 사퇴했지만 여러 차례의 문독한 소명을 물리치기 어려워 마침내 68세의 노령에 대제학·지경연(知經筵)의 중임을 맡고, 선조에게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를 올렸다. 선조는 이 소를 천고의 격언, 당금의 금부로서 한 순간도 잊지 않을 것을 맹약했다 한다.

그 뒤 이황은 선조에게 정이(程)의 '사잡(四箴)', "논어집주", "주역", 장재(張載)의 '서명(西銘)' 등의 운오(藁藁)를 진강하였다. 노환 때문에 여러 차례 사직을 청원하면서 왕에 대한 마지막 봉사로서 필생의 심혈을 기울여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저술하여 어린 국왕 선조에게 바쳤다. 선조 3년 우환이 악화되어 별세하니 선조는 애도하고, 대광보국송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 겸 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영사를 추증하였다.

이황이 이미 "심경부주"·"태극도설"·"주역"·"논어집주" 등의 공부를 통해 주자학의 대강을 이해하고 있었으나, "주자대전"을 완미(玩味)함으로써 그의 학문이 한결 심화되었고, 마침내 주희의 서한문의 초록과 주해에 힘을 기울였다. <다음호에 계속>

이황이 이미 "심경부주"·"태극도설"·"주역"·"논어집주" 등의 공부를 통해 주자학의 대강을 이해하고 있었으나, "주자대전"을 완미(玩味)함으로써 그의 학문이 한결 심화되었고, 마침내 주희의 서한문의 초록과 주해에 힘을 기울였다. <다음호에 계속>